

解冤相生思想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머리말	IV. 生存關係의 여러형태
II. 사랑의 여러 형태	1. 血緣時代 - 鬪爭과 獨生
1. 同家意識과 仁	2. 地緣時代 - 競爭과 竝生
2. 同病意識과 慈悲	3. 地球時代 - 協同과 共生
3. 同罪意識과 容恕	4. 宇宙時代 - 解冤과 相生
4. 同心意識과 理解	V. 解冤相生思想의 現代的 意義
5. 同體意識과 解冤	1. 사랑의 극치 實現
III. 解冤의 方法	2. 永久平和의 達成

I. 머리말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을 종지의 하나로 삼고 있다. 대순사상논총 제1집에서 정대진(鄭大珍) 대진대학교 이사장은 「대순사상 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해원사상은 대순사상의 실천윤리에 있어서 대강령이라고 할수 있다」하고 해원의 뜻은 「신명과 신명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간의 맺힌 원한을 풀다는 것이며 상생의 의미는 「무한히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마치 모자지간같은 사랑을 누구나 나누면서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해원은 「기존의 모든 종교사상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으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대자대비의 사상이나 유교의 인사상이니 그리스도교의 박애사상의 이념은 모두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인류를 공생공존시키기 위하여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이는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하는 상극적 윤리인데 해원은 근본적인 원의 백리를 없애므로써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상생은 「공생윤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개념으로 공생의 윤리는 여전히 상극적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속에서 행해질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에 해당한다면 상생윤리는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서로를 자애하는 윤리적 이상」이라 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태극도에서는 도학원론(道學原論)에서 증산(甌山)사상을 1. 천하대순(天下大巡) 2. 삼계공사(천지공사) 3. 원시반본(原始返本) 4. 解冤相生 5. 정음정양(正陰正陽) 6. 선경세계(仙境世界)로 요약하고 정산(鼎山)사상을 1. 음양합덕(陰陽合德) 2. 신인조화(神人調化) 3. 해원상생 4.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증산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은 음양합덕이 태극진리의 기본사상이고 신인조화가 그 전제이며 도통진경이 그 목적이라한다면 해원상생은 태극진리의 윤리적 사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사상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말하자면 유교의 인의(仁義) 불교의 자비(慈悲) 기독교의 박애(博愛)등이 그것인데 증산사상의 해원은 그 인자애(仁慈愛)의 원점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산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은 체(體)로서의 증산의 가르침에 용(用)으로서의 정산의 가르침을 보충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해원과 상생은 따로 떼어 각각 단독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굳이 분류한다면 해원은 전제가 되고 상생은 결론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해원상생에 관하여 증산선생은 즉접 어떻게 말씀하셨나?

“전경 공사 1-3에는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맞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은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이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다.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나라」 하였고 전경 공사 1-32에는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티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으니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 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 하였고 전경 교법 1-9에는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영의 뼈를 깎은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하였고 전경 교법 2-20에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길성소조(吉星所照)라고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들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하였고 전경 교법 3-15에는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느니 만일 너희글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씨를 부리게 되어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셨다.

또 전경 교법 1-54에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느니라」 하였고 전경 교법 1-56에는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느니라」 하셨다.

증산은 선천시대는 상극으로 원한이 생겨 세상이 어지러웠지만 후천시대에는 그 해원으로 상생의 세상이 되어 좋은 시대가 오는데 해원은 하필 인간계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 모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은 정산 조철재(鼎山 趙哲濟)의 태극도와 우당 박한경(牛堂 朴漢慶)의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의 하나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해원이라는 것은 유교의 인의나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박애사상의 경지를 뛰어 넘은 가장 높은 차원의 평화사상이요 상생이라는 것은 공생윤리의 경지를 뛰어 넘은 가장 높은 차원의 평화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의나 자비나 박애나 지금까지의 이른바 공존 공생윤리는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전제론하고 그악에 대항하여 인의나 자비나 박애를 베풀고 그악과 더불어 공존공생하는 것임에 반하여 증산사상으로서의 해원은 근본적인 원의 뿌리

를 뽑아 버림으로서의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것이 없고 모두 선한 존재끼리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원상생사상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윤리사상에 가장 심오한 경지를 찾은 것이요 지금까지의 임시응변적인 평화사상에 대해서 실로 발본색원적(拔本塞源的)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사랑의 여러 형태

1. 동가의식(同家意識)과 인(仁)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인(仁)이란 무엇인가? 인(仁)자는 두사람(二人)을 의미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일어나는 애정(愛情)을 의미한다. 공자가 효제(孝悌)는 인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혈연적인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인의 근본이다. 이 자연적인 혈연관계에서 생기는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멀리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사회적 국가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사사이다. 맹자(孟子)는 남의 불행을 좌시못하는 측은지심(測隱之心)으로부터 인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맹자가 제선왕(齊宣王)과 만났을 때 묻기를 「왕께서 집위(堂上)에 앉아계실 때 소를 끌고 집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왕께서 「소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니 「잡아서 쇠북에 바르려 합니다」 하니 왕께서 「그 소를 놓으라 그 소가 두려워하는 모양이 죄가 없이 죽으러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하시니 「그러면 쇠북바르는 것을 폐가리까」 하니 왕께서 「어찌 폐하겠느냐 양으로 바꾸라」 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였다. 왕은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하였더니 맹자는 「큰 소 한 마리를 아껴 작은 양으로 바꾸셨으니 백성들은 왕을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왕은 「제나라가 비록 적지만 내가 어찌 소한마리를 아끼겠습니까? 소가 죄없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양으로 바꾼것입니다」 고 하니 맹자는 「왕께서 만일 그 죄없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소와

양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하니 왕은 웃으면서 「이 어찌된 마음입니까? 나는 결코 재물을 아낀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맹자는 「걱정 마십시오 이것이 곧 인술(仁術)입니다.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금수의 산 것을 보고는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그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부역을 멀리하나이다。」하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시(詩)에 가로되 다른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詩云 他人有心 予忖度之)라고 했는데 바로 선생을 이름이로소이다。」하였다.

맹자의 이 소끄는 비유(牽牛喻)는 유교의 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은 남의 불행을 불쌍이 여기는 인간의 본성인데 자연적 단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만물에 미치지마는 그 미치는 강도는 가까운데서부터 시작해서 먼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의 인과 묵자(墨子)의 겸애(兼愛)사상과 기독교의 박애(博愛)사상과 다른 점이다. 이것이 인륜(人倫)의식이다. 그러므로 유교의 인은 위선 자연적 혈연관계에서 출발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멀리까지 파급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적인 인술(仁術)인 효(孝)가 백행의 근본이 되고 이 효가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술을 펴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륜의식은 어디까지나 자연적(自然的) 질서를 존중하고 부자연한 인위적(人爲的)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유교의 인사상은 가정에서 국가로 다시 천하로까지 확대해 나간다. 가족제도를 중요시하고 조상 숭배를 강조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유교의 인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관계의 자연적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그 거리의 멀고 가까운데 따라서 인의 농도(濃度)도 같지 않다. 인의 출발점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동가의식(同家意識)이다. 그러므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자연적 애정인 효제가 인의 출발점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적 인정으로 마치 하늘이 대자연을 사랑하여 만물을 키워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가정적 애정이 극건한 사랑이라야 다른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요 자기 가정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일종의 원근의식(遠近意識)이 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

고 또 허위(虛僞)에 흐리기 쉽다. 유교가 인륜질서를 존중하여 먼저 가정을 다스린 연후에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자연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요 그와 같은 자연적 질서가 제도화된 것이 예(禮)인 것이다.

이점에서의 동가의식을 기초로 생긴 인은 자연히 평등애(平等愛)가 아닌 차별애(差別愛)가 된다. 억지로 이루려는 평등은 자연적 질서를 해치고 자연적 질서가 해쳐지면 인류평화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유교의 인의 차별 성을 잘 나타낸 것이 위에서 말한 맹자의 소끄는 비유다.

사람은 누구나 천성으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맹자는 어린 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에게 본래 측은한 마음이 있고 그 측은한 마음은 곧 우주의 본체요 인성의 본성으로 맹자는 그것으로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다.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성(性)인데 성은 곧 양심(良心)이요 하늘의 명령이다. 중용(中庸)에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한 것도 이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의 마음이 원근의 단계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사회질서가 문란된다. 그 인이 단계적으로 차별을 이루는 것이 의(義)다. 인은 본래 천명이요 인간의 본성으로 보편성을 띤 것이지만 그 인이 사회 평화를 가져오게 하자면 차별성을 부여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의(義)다. 그러므로 의가 없는 인은 맹목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맹목적인 사랑은 의가 아니다. 맹자의 소끄는 비유에 희생이 되기 위해 끌려가는 소를 보고 왕이 동정한 것은 인의 근본사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희생을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대신 양을 쓰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는 당장에 눈에 보이어 누구든 그에 대한 동정이 크지만 양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동정이 약한 것은 일종의 자연적 심정이다. 보이는 소와 보이지 않는 양에 대한 동물에 대한 차별적 애정은 같은 사람이라도 한집에 사는 사람과 다른집에 사는 사람과의 사랑에 차별성을 두는 것과 같다. 동가의식에 기인한 인은 어디까지나 농경사회적인 가족제도의 동가의식에 기초한 차별적인 사랑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자기부모를 학대하고 남의 부모를 공경한다던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남의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의(不義)가 될 수밖에 없다.

2. 동병의식(同病意識)과 자비(慈悲)

불교의 유마경(維摩經)을 보면 유마거사(居士)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석가가 여러 제자를 시켜 문병하였다. 그중에서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유마거사를 문병하고 문답하는 가운데 문수보살이 「거사님의 병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유마거사는 「세상사람들이 다 병들고 있으니 나도 병들었습니다」하였다. 또 문수보살이 「그러면 거사님의 병은 언제 낫게 됩니까」하고 물었더니 유마거사는 「세상사람들의 병이 다 나면 내병도 나올 것입니다」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병들었으니 나도 병들어 있고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병든 사람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동병의식에 기인한 자비의 정신이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으로 본다. 열대지방에 속하여 살기 어려운데다가 계급제도가 심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큰 고통으로 되어 있는 인도의 풍도에서는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解脫)인데 해탈을 하려면 남의 고통에 동참하여 동정을 베푸는 이타행(利他行)을 하여야 한다. 이 남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자비다.

유마거사는 모든 중생이 병들어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자기도 그 고통을 체험하려면 다른 중생과 같이 병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동병의식으로 자비의 정신이 생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유교에서는 자연발생적이 가족적 애정을 그 모태로 하고 기독교에서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고통에서의 해방을 중요시한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열반(涅槃)의 경지에 드는 것이 성불(成佛)인데 성불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만 한다. 자비는 일체 생물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생명을 존중함은 물론이요 남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유교는 농경사회의 가족 공동체가 그 출발점이지만 불교는 침략자인 아리안족의 혈연공동체가 계급제도를 영속화시켜 사회의 불평등을 가속시켜 심한 고통을 주었으므로 석가는 위선 만민평등의 원리를 내세워 계급제도에서 오는 고통을 제거하는데 유의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이 본래 불성(佛性)을

가진 평등인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자비행의 수행으로 불성을 깨치면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비라는 것은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에 동참하여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자비는 고통에 동참하는 것인데 고통에 동참하려면 자기 스스로 그 고통 상태에 들어가야만 한다. 가난한 사람의 고통은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처지에 놓여 보아야 그 고통을 알 수가 있고 병든 사람의 고통은 자기 스스로가 병들어 보아야 그 고통을 알 수가 있다. 유마거사가 중생의 병든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병들었는데 그 동병의식에 기인한 자비의 정신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3. 동죄의식(同罪意識)과 용서(容恕)

기독교에서는 박애를 강조하는데 그 박애정신은 용서의 형태로 나타난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 민족은 선민(選民)사상과 율법(律法)사상이 강하여 이민족(異民族)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율법을 어긴 자는 엄벌에 부치었다. 유대 민족이 이와같이 이민족을 질시하는데에는 오랫동안 이민족의 압박을 받아 온 것이 원인이 되었고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사상을 정당화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을 율법과 의(義)의 신으로 간주하고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신앙하는 것을 금하고 그러한 금기를 어기면 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예수는 무엇보다도 율법과 의와 복수의 하느님의 성격을 복음과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으로 전환시켰다. 이와같은 유대신앙의 대전향은 유대인의 불신을 사게 되어 결국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히게 되었다.

예수는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를 여러번 외쳤고 마태복음 5장이하의 산상수훈에서도 용서를 강조했다. 여기서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신에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남이 오른쪽 볼따귀를 때리면 왼쪽까지 들이대고 아래바지를 달라하면 웃웃까지 주고 십리를 가자하면 이십리를 가라」고 하고 다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이는 모두 종래의 유대 율법인 복수사상을 용서사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는 용서사상을 갖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이 얘기가 있다. 예수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들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찌 하시겠습니까」하고 말했다. 이는 참으로 난처한 질문이다. 만일 예수가 유대의 율법대로 돌로치라고 하면 예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또 용서해주라고 하면 유대의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퇴양난의 처지에선 예수는 「당신들 중에서 죄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하였다. 이말을 듣고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흩어져 갔다고 하였다. 여기에 「죄없는 사람이 있거던」하였는데 이말 가운데에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뜻이다. 이 동죄(同罪)의식에서 다같은 죄인의 처지에 다른 죄인을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결국 용서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기독교의 동죄의식은 구약 창세기에 인간이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타락한 때부터 생긴 원죄(原罪)에 기인한다. 예수는 이 원죄의식을 상기시켜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의죄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4. 동심의식(同心意識)과 이해(理解)

우리 한민족은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를 가졌는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기(古記)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하느님(桓因)의 둘째아들(庶子) 환웅(桓雄)이 자주 천하를 생각하고(數意天下) 인간세상을 탐해구했다.(貪求人世) 하느님이 아드님의 뜻을 알아차리시고(父知子意) 그 아들을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상을 펴기위해 태백산(太白山) 신단수(神檀樹)아래로 내려보내셨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하느님이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 아들의 뜻을 알아주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로 미루어 우리 한 민족의 사랑의 형태는 상대방의 뜻을 알아주는 것, 즉 이해이다.

상대방의 뜻을 알아주는 이해의 정신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심의식(同心意識)에 기인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라

고 생각했다. 이 동심의식은 동가의식과 동병의식과 동죄의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같은 집에 살면 자연히 마음이 같아지고 자연적인 애정이 일어날 수 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그 병자끼리는 마음이 같아서 이른바 동병상련(同病相憐)이 된다. 그러므로 동병의식에 의한 자비의 정신도 동심의식에 의한 이해의 정신과 다를 것이 없다. 또 동죄의식에 의한 용서의 정신도 동심의식에 의한 이해의 정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한민족의 사랑의 형태인 이해의 정신은 동가의식이나 동병의식이나 동죄의식을 모두 포함한 사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동체의식(同體意識)과 해원

증산의 해원사상은 천지만물이 모두 일체라는 동체의식에 연유한다. 만물이 따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몸 가운데의 한 곳이 막힌 곳이 있으면 몸전체가 불편하므로 그 막힌 곳을 풀어줌으로서 몸전체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몸은 본래가 청정(淸淨)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정(不淨)하게 된다. 그 부정한 것이 쌓이면 원한이 된다. 원한이 쌓이면 병도 되고 죄도 된다. 그러므로 그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 내면 몸의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병도 없어지고 죄도 짓지 않게 된다. 동병의식에 기인한 자비와 동죄의식에 기인한 용서는 그 병과 그 죄를 그대로 두면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이지만 해원에 이르러서는 병 그 자체가 없어지고 죄 그 자체가 없어져서 발본색원(拔本塞源)적으로 해결을 보게 된다. 말하자면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용서가 병리학(病理學)적인 사랑의 형태라면 증산사상의 해원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생리학(生理學)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증산의 동체의식은 우리 민족의 동식의식을 한발짝 전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동심이라는 것은 일단 복수(複數)의 주체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 단군고기(檀君古記)에도 하느님과 그 아들이라는 두 주체를 설정하고 두 주체 사이에 마음이 같은 동심상태를 말하고 있다. 우리의 무속(巫俗)에 「살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한을 가진 원신(冤神)이 성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성

한 사람이 병이 되므로 그 원신을 쫓아내면 그 병이 남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원사상에서는 주체가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천지인(天地人)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몸을 이루고 있어 원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안간의 몸이나 자연이나 하늘이나 영혼이나 귀신이 모두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 그 어디인가에 부정(不淨)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면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은 들어온 원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있는 부정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속에서의 살풀이는 그원신이 일시 추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한자체가 해소되지 않은 한 다시 원신이 들어 닥치는 불행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증산의 해원사상은 일단 해원이 되면 원한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원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져서 불행이 다시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또 천지인이 일체요 삼계도 일체이므로 인간계의 해원이나 자연계의 해원이나 신명계의 해원의 어느 하나로는 불완전하고 인간계 자연계 신명계의 모두 영역에 있어서 해원이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해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원이 되면 그 속에 인이 있고 그 속에 자비가 있고 그 속에 용서가 있고 그 속에 이해가 있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평화스러운 경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체의식에 기인한 증산의 해원사상은 동가의식에 기인한 유교의 인사상 동병의식에 기인한 불교의 자비사상 동죄의식에 기인한 기독교의 용서사상 동심의식에 기인한 한국의 이해사상의 모든 것을 다포함한 근본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Ⅲ. 해원의 방법

원한은 천리(天理)를 어기는데서 생긴다. 우주나 천하는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그것은 천리요 천지도수(天地度數)다. 천지만물이 천리에 따라 천지도수대로 운행되면 만물이 조화되고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만물은 태극을 중심으로 하고 음양합덕으로 운행된다. 그런데 그 음양이 합덕을 이루지 못하고 도수를 어기면 천지에 이변이 생기고 인체에 병이 생긴다. 모든 존재는 다 신기(神氣)를 포함하고 있는 지고한 존재로 결코 차별이 있을수 없다. 인간도 시천주(侍天主) 즉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신령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에 존엄성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과거 봉건시대에 남성이나 양반만이 존엄성을 주장하고 여자와 서민은 천하게 보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했다. 그것으로 마음과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고 원한이 생겨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해원하는 방법은 먼저 차별받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인간다움게 대접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마치 자연법칙처럼 생각해 왔다. 찰스다윈(Charls Dawin)이 진화론(進化論)에서 적자생존론(適者生存論)을 주장하여 약육강식(弱肉強食)이 자연법칙처럼 생각했고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계급 투쟁론(階級鬪爭論)에서 강자에게 억압받던 약자들의 원한과 미움의 반발이 역사를 전진시켰다고 했다. 자연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약육강식의 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약육강식보다 강한 자가 약한자를 도운 일이 많고 그와 같이 상호부조하는 생물과 민족은 장기적으로 살아났었지만 약육강식하는 생물과 민족을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한 것이 많다. 동양의 유교에서 인성을 본래 착하다고 보았고 불교에서 인성의 본질은 부처의 성품(性品)이라고 본것과 또 러시아의 무정부주의 사상가 크로포토킨(Krofotokin)이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에서 생물계에는 상호투쟁보다는 상호부조하는 면이 더 많다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과 신명은 본래는 건강하였는데 원한이 생기면서 병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원으로 천지인과 삼계 모두가 건강을 되찾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해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증산 선생께서 친히 해원의 천지공사를 베풀어 해원의 토대가 잡히기는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도 저마다 해원을 하여야만 완전한 해원이 된다.

증산은 선천 상극의 시대로부터 후천 상생의 시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해원이라고 보았다. 역사상 20세기는 인류 상호상에 가장 투쟁이 심해서 상극의 극을 이룬 세기다. 이제 21세기는 음양순환의 원리에 의하여 상극의 시대대신에 상생의 시대로 순환되어 들어가게 되는데 상생이라는 것은 평화의 극치다. 21세기의 평화의 세기가 될 것인데 그 지도원리로서는 기성 종교의 신라의 형태도 많은 작용을 하겠지만 해원의 사랑의 형태도 많은 작용을 할 것이다.

해원이 되면 갈등과 복수 대신 협동과 평화만 있을 것이다. 지금 20세기를 마감함에 있어 인류에게 원한을 준 것은 모두 풀어버려야 한다. 먼저 그동안 서양사람이 동양을 식민지화하고 열등시하는 바람에 동양인 전체의 한이 생겼다. 동양가운데에도 특히 약소민족은 서양인으로부터의 학대와 더불어 같은 동양인들로부터도 학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특권 계급에 의하여 서민계급의 한이 생기고 남성들에게 의하여 여인의 한이 생겼다. 그러므로 해원은 먼저 이러한 외부적 불만을 시정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증산이 특히 양반보다 천인을 우대하여야 하고(전경 교법 2장 20절) 남녀의 분별을 티우라고 한것은(전경 공사 1장 32절) 이 까닭이다.

외부적 불만이 사라져도 내부적 불만이 살아있으면 해원이 안된 것이다. 외부적 불만은 세상의 불평등에서 오지만 내부적 불만은 마음의 부자유에서 오고 마음의 부자유는 마음이 흔들리는데서 온다. 그마음의 흔들림을 막는 것이 수도(修道)다. 수도는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여 마음의 흐트러짐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본래의 자유를 회복함에 있다.

마음의 본래의 자유를 회복하면 마음은 그 본래의 천성(天性)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양심(良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해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 되게 하라 고 가르치는데 이는 내부적인 마음의 자세와 외부적인 언행에 대

한 근본 수도방법이다.

해원의 근본은 마음가짐이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그 천성은 유교적인 인이요 불교적인 자비요 기독교적인 용서요 한국사상의 이해요 증산사상의 상생의식이다. 그것은 나와 남의 구별이 없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인간과 지구,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 인간과 신령, 인간과 우주 즉 천지인이 일체라는 동체의식이다. 그러므로 나와 남이 일체에서 내가 잘 되려면 먼저 남이 잘 되어야 함으로 남을 잘 되게 하는 이타(利他)의식이 마음의 본체이다. 이 이타정신을 되살리는데 해원의 근본이다. 이 이타정신은 결코 나를 희생시키고 남만을 이롭게 하는 자해이타(自害利他)가 아니라 동체의식에서 일어나는 자리리타(自利利他) 정신이다. 말하자면 내가 잘 되기위해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의 몸은 하나이어서 손이 아프면 몸전체가 아프고 몸전체가 아프면 발도 아프므로 발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손이 아프지 않아야 하고 손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발이 아프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다. 손이 건강하면 몸전체가 건강하고 몸전체가 건강하면 발도 건강한 것처럼 나와 남은 동체(同體)이므로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것이다. 이 남을 잘되게 하는 정신이 인성의 본질이요 마음의 본성이다. 이 마음의 본성을 속이는데서 남의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고 남의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으로하여금 나에게 맺힌 원한을 품게 만들고 그 원한이 쌓이면 척이 된다. 그러므로 척을 짓지말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의 본체인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는 것이 원한을 품는 근본 원인이 된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천지도수에 합치시키는 것이요 마음을 천지도수에 합치시키는 것은 사심(私心)이나 욕심(慾心)을 버리는 것이다.

마음을 그 천성대로 지키고 그 천성의 명하는 대로하면 마음의 발로인 말과 행동이 천성대로 바르게 되고 마음을 속여서 그 천성의 명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의 발로인 말과 행동이 천성과 달라져서 좋지 않게 된다. 언행은 곧 마음의 그림자로서 마음이 바르면 언행이 바르고 마음이 나쁘면 언행이 나빠진다. 그러므로 그 언행을 보면 그 마음을 알수 있다. 남이 잘 되

도록 하는 언행은 원한이 생기지 않고 원한이 없으면 거기에는 사랑만이 있으므로 나와 남이 상생할수 있다. 해원은 남을 잘 되게 하는 마음이요 남을 잘 되게 하는 마음은 나와 남이 일체를 이루고 남의 덕으로 내가 있으므로 늘 남의 은혜를 생각하게된다. 그러므로 해원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므로 해원의 근본은 마음의본성을 찾는 것이요 마음의본성은 남의 은혜로 내가 있으므로 남이 잘 되어야 하는 정신이요 남이 잘 되어야 하는 정신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정신이기에 원한이나 척이생기질 않으며 원한이 없는 해원상태에서는 그 언행이 스스로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여러 스승이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유교의 인사상이나 불교의 자비사상이나 기독교의 용서사상이나 한국의 이해사상들이 있는데 증산의 해원사상은 이 모든 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IV. 생존관계의 여러 형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독생(獨生) 병생(併生) 공생(共生) 상생(相生)이다. 독생은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투쟁을 통해 한쪽만이 생존하는 것인데 다윈의 자연도태설(自然淘汰說)이나 적자생존설(適者生存說)도 그러한 사상이다. 병생은 서로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서 한쪽이 우세한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쪽도 아주 없어지지 않고 있어 이어지는 경쟁을 통해 어느 때 그 우열이 뒤바뀔지 모르는 잠정적 상태이다. 공생은 서로가 협동관계에 있어 상대방은 서로 상보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이 우세한 형태가 아니라 양쪽이 다같은 우세로 생존하는 관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관계이다.

그러나 공생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와 타인이라는 두 주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두 주체가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생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수도 있다. 두 주체간의 공생은 결국 일시적이요 잠정적이다. 이

일시적이요 잠정적인 것을 넘어서 영구적 공생을 기하려면 두 주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하나의 주체라는 의식이 생겨야 한다. 이러한 일체의식 또는 동체의식에서는 영구적인 공생이 가능한데 이것이 비로 상생이다.

인류의 발전 단계를 보면 혈연(血緣)시대 자연(地緣)시대 지구(地球)시대 우주(宇宙)시대로 대별할수 있다. 혈연시대는 인류가 아직 몽매하여 가족 종족과 같은 혈연끼리 뭉쳐서 다른 혈연과 생존권을 위하여 투쟁하던 시대요 자연시대는 민족과 국가가 일정한 지역에서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여 각 민족과 국가끼리 서로 경쟁하던 시대요 지구시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의식을 기초로 전지구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서로가 협동하는 시대요 우주시대는 천지인이 일체라는 우주의식을 가지고 전인류가 평화적으로 공존할뿐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무생물 영계 신명계가 다같이 상생하는 시대이다.

혈연시대에는 투쟁의 원리가 지배하여 투쟁에 이긴자만이 독존독생(獨存獨生)하는 시대요 자연시대는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여 서로 경쟁하는데 우세한 자와 열세한 자가 병존병생(並存並生)하되 어디까지나 우세한 자가 판을 치고 열세한 자가 힘을 못쓰는 시대요 지구시대는 협동의 원리가 지배하여 각민족과 국가사이에 강한자와 약한자가 있어도 서로가 협동하여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시대요 우주시대는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여 만물이 일체를 이루어 상존상생(相存相生)하는 시대이다.

1. 혈연시대 - 투쟁과 독생

오랫동안 인류의 생활은 동물과 다름이 없이 다른 종족을 적대시하여 투쟁하고 오직 강한 자만이 홀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강자나 약자가 결국은 다같이 멸망해 버리는 결과를 갖아왔다. 동물들은 생에 대한 본능(本能)만 강하고 이성(理性)이 부족하여 장래를 내다볼수 없기 때문에 무모한 투쟁의결과로 많은 동물들이 멸망했다. 그러나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달리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투쟁의 결과 강한자나 약한자가 다같이 공멸할 것을 알고 투쟁보다 경쟁을 택하게 되었다. 인

류가 경쟁의 원리를 자각한 것은 인류에게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고 온갖 문명도 이로 인해 발달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가 이 투쟁의 원리를 버린 것은 아니고 아직도 지구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류가 그 생존방법으로 투쟁의 원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가장 큰 투쟁형식은 전쟁이다. 인류는 동물과 달라 원시적인 투쟁 방법은 벗어났지만 가장 과학적인 투쟁방법인 전쟁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람 가운데에는 전쟁을 정당시하여 전쟁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요인이고 인류를 정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이도 있으나 어느의 미론도 전쟁은 정당시 될 수 없다.

하필 전쟁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투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옳지 않다. 증산이 선천시대는 상극의 시대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인류의 투쟁관을 말하는 것으로 무슨 문제이든지 투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진보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2. 지연시대 - 경쟁과 병생

투쟁관계는 생존과 멸망의 두 극단이 있을뿐이요 그 중간적인 것이 없다. 투쟁에 있어서는 투쟁에 이기면 살아남고 투쟁에 지면 죽을 뿐이요 그 중간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에 이겼다하더라도 늘 안심하고 미래까지 살아남을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 경쟁에 졌다고 하더라도 아주 멸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있다. 투쟁의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라면 경쟁의 대표적인 것을 운동경기다. 투쟁은 아무 규율도 없는 무법천지이지만 경쟁은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싸운다. 그 규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다. 영국의 아담스미스(A. Smith)는 자유경쟁의 이론을 주장하여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경쟁은 힘있는 자가 가차없이 약한자를 누르기 때문에 경쟁이 오래 가면 결국 경쟁에서 독점자가 생겨 그 독점자의 강한 힘이 약한자와 경쟁이라기 보다는 투쟁의 양상을 띠게 되고 만다. 이른바 경쟁의 제국주의화(帝國主義化)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경쟁에 이기고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악용하게 되므로 경쟁이 발달할수록 약점만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인류의 진보를 해치게 된다.

3. 지구시대 - 협동과 공생

경쟁이 결국은 투쟁으로 가기가 쉽고 또 경쟁이 치열할수록 약점만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 인류의 선각자들은 경쟁의 원리 대신 협동의 원리를 찾아내고 강자와 약자가 공존공생하는 길을 찾게 되었다.

인류에게 일찍부터 협동의 원리를 가르쳐준 사람은 도덕과 종교를 창시한 성인(聖人)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인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끊이지 않았다. 오랜 경쟁 다음에는 협동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협동으로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경쟁이 투쟁보다는 진보된 생활양식이지만 그 경쟁에도 폐단이 일어나서 이른바 선의(善意)의 경쟁이라는 것이 대두되었다. 덮어놓고 상대방에게 승리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른바 악의(惡意)의 경쟁에 대해 서로가 경쟁을 하되 상대방도 살리는 이른바 공생(共生)적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와같은 공생적 경쟁의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경쟁이 있는 한은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와 패자가 공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공생이요 도저히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악의의 경쟁이나 더 후퇴해서 투쟁으로 가기 쉽다. 그러므로 경쟁을 위주로 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공생을 면할 수 없다.

투쟁에서는 물론 협동의 자취를 찾아볼수 없고 경쟁에 있어서는 선의의 경쟁에서 다소 협동의 요소가 없지않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협동이 아니다.

4. 우주시대 - 해원과 상생

지금 지구시대를 맞아 협동을 역설하고 있지만 진정한 협동이 아니고 경쟁 단계에 머무는데 그치고 있다. 진정한 협동은 먼저 해원이 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요 해원이 되지 않은 사이에서는 아무리 협동이라고 하고 공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협동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공생이 되지 않는다.

협동보다 한 단계 높은 해원단계에 들어가면 자기와 상대방이 일체를 이루므로 자기가 이를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이른바 제로섬(zero sum)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이로우면 다른 사람이 이로우고 자기가 해로우면 다른 사람도 해롭게 되는 동체의식에서 프라스 섬(plus sum)현상이 나타난다. 제로섬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개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하나의 개체와 또 다른 하나의 개체사이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나와 다른 사람은 각각 독립된 개체이므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이를테면 물건을 팔고 사는 상업적 관계로 서방세계의 논리다. 이에 대해서 동방세계의 인간관계는 물건을 팔고 사는 상업적 관계가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해서 농사를 짓는 농경적 관계로 나와 다른 사람의 이해는 일치된다. 물건을 팔고 사는 사이에 있어서는 파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이 판 사람이 이익을 본 만큼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본만큼 이익을 보게 되므로 그 이익과 손해는 합치면 제로(0)가 된다.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합치면 제로가 된다고 하여 「제로섬」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것이 상극하는 변증법(辨證法)적 관계다. 그런데 농사를 같이 짓는 사람사이에는 나와 남이 이해가 일치되어 나와 남이 같이 일을 하면 그 만큼 이익이 더불어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라스 섬」이다. 이는 모든 것이 상생하는 음양법(陰陽法)적 단계다. 진정한 협동은 바로 프라스 섬의 경지다. 나도 이롭고 다른사람도 이로운 자리리타(自利利他)의 경지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진정한 협동이다.

경쟁에 악의의 경쟁과 선의의 경쟁이 있어 악의의 경쟁은 투쟁과 다를 것이 없고 선의의 형쟁이라야 진정한 경쟁인 것 같이 협동의 경우에도 공생적 협동과 상생적 협동이 다르다. 공생적 협동은 협동을 하되 아직도 나와 남

이 상극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협동이 일시적이에요 결코 영구적이 못된다. 상극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언제 그 이기심을 발동시켜 협동을 깰지 모른다. 상극적 관계에서는 인간의 본심(本心)인 양심과 그 양심을 가리고 있는 사심(私心)인 욕심이 공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도 언제 그 욕심이 발동할지 몰라서 늘 불안한 상태다. 그러나 해원이 된 사람은 본심인 양심을 가리우는 사심의 욕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욕심이 다시 발동할 여지가 없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의 공생과 원한을 품은 사람들의 상생은 전자가 소극적 평화상태인데 그저 안심(安心)하는 경지임에 비해 후자는 적극적 평화상태로 다만 안심할 뿐 아니라 환희(歡喜)를 맛보는 상태다. 불교에서 번뇌를 해탈하면 견성(見性)하고 견성하면 부처가 되어 다시 악을 행한 가능성이 없다하고 기독교에서 중생(重生) 즉 거듭나면 원죄가 없어지고 성결(聖潔)의 경지에 이르러 다시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다만 불교에서는 참선과 같은 자력(自力)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기도와 같은 타력(他力)을 통하여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원사상에서는 천지인 일체의 원리에 따라 자력과 타력이 감응하는데서 해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마음의 티끌을 터는 동시에 천지의 도수가 바로 잡아져야만 해원이 된다.

그러므로 해원이라는 것이 사랑의 극치라는 것과 상생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생존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해원이 되면 거기에는 이미 자기와 타인의 구별이 없어진다. 자기와 타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한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자기와 타인이 일체가 되면 거기에는 원한도 있을 수 없고 미움도 있을 수 없고 싸움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그 누구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원한도 미움도 싸움도 없어진다. 거기에는 그저 사랑과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상생이다. 말하자면 공생은 일시적이고 상극적인 평화 형태라면 상생은 영구적이고 상생적인 평화 형태이다. 「나와 남」이 같이 사는 공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같이 사는 상생이다. 우주시대에 있어서는 천지만물은 물론이요 신명계까지 모두 일체가 되어 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천

개벽이요 조화 선경(造化仙境)이다.

V.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1. 사랑의 극치 실천

인류는 그동안 많은 성현이 나타나서 인류가 행복스럽게 살기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을 역설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여 오늘의 인류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러한 성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인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여 가면서 투쟁의 단계와 경쟁의 단계와 협동의 단계를 넘어 해원의 단계에 이르고 독생과 병생과 공생의 경지를 넘어 상생의 단계에 이르렀다.

성현들의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종교나 도덕의 형태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성현들은 천지법칙을 깨닫고 먼 앞날까지 내다볼수 있는 깊은 지혜로 가르침을 베풀어 그야말로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드러냈다. 그러면 위대한 성인이 한번 나타나면 다시 더 새로운 가르침이 생길 필요가 없고 위대한 종교가 나타나면 다시 새로운 종교가 생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현을 계속해서 나타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베풀었고 새로운 종교도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변해가는데 대응하기위해서 부득이한 일이다.

새로운 종교는 대개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처음에 베푼 성현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는데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또 그 하나는 여러 성인들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는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는 처음의 형태요 동양의 유불선은 그다음의 형태다.

예수가 창시한 기독교는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였으나 그것이 로마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갈라지고 다시 로마가톨릭에서 개신교회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 예수의 가르침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중점을 달

리하기는 하여도 예수의 정신을 일관시키고저 하는데에는 모두 같다. 이와 반대로 동방의 유불선을 그 교조도 다르고 교리도 같지 않지만 서로가 자유로히 교류하여 불교안에 유교가 있고 유교속에 불교가 흡수되고 불교 가운데 도교가 살아있는 유불선이 혼합되어 왔다. 그러므로 서양에서 새로운 종교라면 기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 계통의 새로운 교파가 많이 생겨났지만 동양에서 새로운 종교라면 어떤 하나의 기성종교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장점까지 흡수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동양의 종교는 주로 다른 동양의종교를 흡수하는데 유의하였는데 수운선생은 비단 동양종교뿐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사상도 참고하여 동학을 참시했고 증산 선생은 동양종교를 종합한 것은 물론이요 수운선생이 다소 소극적 부정적으로 대한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극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증산은 지금까지의 성현들의사랑의 여러형태를 모두 흡수하면서 해원이라는 것이 가장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런 의미에서 증산의 해원사상은 지금까지의 사랑에 관해서 가장 궁극점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는 모든 사랑의 형태를 모두 긍정하고 그러한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원이 없이는 인도 자비도 용서도 이해도 자칫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염려도 없지 않다. 그러한 사랑을 영구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해원이 되어야 한다는데서 이 해원사상은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를 진실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증산사상은 이와같이 동양종교의 전통에 따라 모든 다른 종교사상을 흡수하면서도 동양종교로서의 근본은 견지하고 있어 그 주체성이 확실하다. 증산사상이 세계의 모든 종교사상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은 그 뿌리가 튼튼하다는데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적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또한 원시반본(原始返本)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뿌리에 담긴 사상의 위대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 위대한 뿌리는 사랑의 극치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류전체의 우주만물을 구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영구평화의 달성

어떻게 하면 인류가 영구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인류의 한결 같은 염원이었다. 성인들이 종교를 만들어 사랑과 평화를 가르쳤지만 아직도 인류의 영구평화는 오지 않고 있다. 성인들의 종교의 가르침은 주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기 보다는 외형적인 제도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없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칸트(Kant)는 영구평화론(1795)을 주장하여 국제간에 영구평화를 가져오는 조건을 말하고 그 이상은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서 1920년에 탄생된 국제연맹(國際聯盟 The League of nation)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 국제연맹으로도 제2차 세계전쟁을 막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말에 가까워진 1945년 6월에 국제연합(國際聯合 The united nation)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국제연합으로도 지금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연맹은 국제조약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제연합은 강력한 국제기구를 두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세계연방(世界聯邦)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연방운동은 현재의 국제연합을 개혁하여 세계헌법(世界憲法)에 의한 세계연방정부(世界聯邦政府)를 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증산의 해원상생으로 이루어지는 조화선경사상은 영구평화를 달성하는 길이다. 조화선경은 해원으로 천지의 도수가 정리되어 각종교가 통일되고 모든 신명들이 통일되어 영구평화가 보장된 세계다. 세계연방론은 세계국가를 통일시키자는 주장인데 세계국가의 통일은 지금과 같은 국가주의 시대에서 좀처럼 실현을 보기가 어렵다. 그것보다 신계를 통일시키면 신계가 평화를 누리고 그 바람에 인간계에도 평화가 올 것이므로 조화선경사상은 국가의 통일 없이도 영구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너무 국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야를 높여서 우주라는 관점에 서면 국가간의 분쟁도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간의 전쟁은 국가주의가 빚어낸 것이지만 앞으로는 국가간의 충돌보다 문명간의 충돌이 전쟁을 이르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헌틴팅(Huntintong)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서양기독교와 동양의 종교와 이슬람이 충돌할 가능성을 말하였는데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이 발전되면 문명간에는 충돌이 없고 오히려 서로

협동하고 상생하게 된다. 선천에는 상극의 원이 지배함으로 종교가 많으면 서로 싸우지만 후천에는 상생의 운이 지배함으로 종교가 많을수록 서로 의 좋게 지낼 수가 있다. 전경 예시 13절에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 하여 한가지 도만을 따로써서 난국을 능이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하였는데 여기에서 모든 종교와 사상의 공존을 볼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그 발생은 특수한 환경이지만 그 정수에 이르러서는 보편성이 있으므로 주체적 전통을 간직하면서 각 종교가 상생할 수 있다. 전경 교법 3장 23절에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들이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걸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할지니라」한 것은 문명의 정수는 보편성이 있으므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문화의 정수인 신명들이 공존하는 조화선경사상은 지금까지의 인류가 생각한 영구평화사상의 정상을 이루는 것인데 이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나 세계연방론들이 모두 지구적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을 우주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진실로 우주적 관점에서야만 모든 신명과 인간과 국가와 기타 만물이 해원상생할 수 있고 이 해원상생으로 이루어진 우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조화선경이 영구평화를 달성시킬 것이다.